

'99 방산학회 정기총회 열려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기업문화" 주제로 특별 강연



한국방위산업학회 '99 정기총회가 학회 회원 및 방산 관련 인사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4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1998년도 사업 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1999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을 진행하고 이 어령 이화여대 교수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기업 문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99 국방사업 조기 발주 계획

- 국방사업비 4조 5,564억원 상반기중 발주

국방

부는 '99국방예산중 경기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생산 장비·물자 및 시설건설사업 등 국방사업비 4조 5,564억원을 상반기중 발주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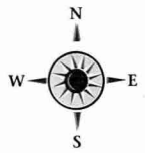
이는 국방부 내자사업비 예산 5조 6,296억원의 80.9%에 달하며 작년 상반기 발주액 2조 8,400억원의 1.6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조기발주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 세부실천 지침을 각 군에 시달하였는 바, 우선 국방부의 집행통제 완화로 국방사업 조기발주

를 위해 각 군 시설사업에 대한 국방부 승인요건을 과거 3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승인권도 각 군에 대폭 위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난해보다 12.3%(1,930억원) 상향 조정한 1조 7,662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중 73.6%인 1조 2,996억원은 상반기중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업체와의 직접계약 확대, 일정지역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지역 제한경쟁 계약제



도를 활성화하여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국내 방산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구매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대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212개 품목을 국산 대체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3,857개 품목(약 1,476억원)에 대한 국산대체 가능성 여부를 검토,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K-1전차, K-200장갑차, K-55자주포 등 국산화장비 및 F-4D, F-4E 항공기 기체/기관정비소유는 방산업체에서 정비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5.6% 증가한 2253억원 규모의 외주정비 예산을 확보, 이중 1,800여

억원은 상반기중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기발주 계획과 병행하여 국방부는 업체의 생산자금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금청구시 제출하는 증빙참고서류 간소화 등 민원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계약시 지급되는 착수금은 회계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계약금액의 70%)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미 시달한 조기발주 지침의 이행여부 및 사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기집행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방부 차원에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군 겸용 기술사업 추진

- 중복투자과 비효율적 예산 사용 방지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국방 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 4개부에서는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범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기술개발사업을 정부 각 부처별로 수행함에 따른 중복투자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98년 4월에는 민·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군 겸용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민·군 규격통일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과기부에서 61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비냉각 열상센서와 장비" 등 7개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98년도 민·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정에 이어 금년에는 동법 시행령과 공동시행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98년 10월에 전반적인 민·군 겸용기술사업을 총괄, 조

정, 관리할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센터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립하여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사업내용은 4개부서가 공동으로 투자(국방부 50억, 과기부 180억, 산자부 50억, 정통부 10억 등 총 290억원), 기술수요 조사결과 선정된 56개 과제를 일간지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연구기관 및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공개 모집하며, 3월중에 서울과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모 접수된 과제는 4월중에 전문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관 부서별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첨단과학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협력으로 연구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실용화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9년도 중소기업 지원 계획

- 중소기업의 가동률 제고와 고용 안정 위해

국방

부 조달본부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99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조달본부는 '99년도 총 조달계획 4조 181억원 중 국외 조달을 제외한 국내조달 규모는 3조 3,761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과 직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8,046억원이다. 방산 및 주요장비의 생산체계가 전문화·계열화되어 있어 대기업 계약액중 중소기업의 하도급·임가공·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한 간접 납품참여 부분을 고려해 볼때 제조 원가의 약 60%인 1조 5,400억원으로 추산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국방조달 관련 납품 금액은 총 2조 3,446억원에 달한다.

조달본부는 중소기업의 가동률 제고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기에 발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직계약분은 상반기중 7,148억원을 계약하고('99년도 목표 대비 89%) 대기업을 통한 간접 납품은 1조 2,300억원이 되도록 하여

국방조달 관련 상반기중 중소기업 수주 금액은 1조 9,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조달본부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법으로 허용하는 대금지급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조기 지급하며, 자금 부족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우선 지급하고, 기술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기술자문 및 보유 장비의 사용 지원과 시중에서 획득 곤란한 국내외 군사용 기술자료나, 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공 또는 대여해 줌으로써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원가 기능이 부족하므로 업체 실무자를 소집해 연 1회 이상 원가계산 실무와 관련규정을 교육시켜 법적으로 보장된 이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포괄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해 주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군사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성과 달성

- 외화가득 및 고용창출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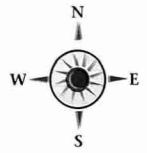
부 조달본부는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면서 소요되는 외화를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절충교역」이란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국내에 도입되는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을 획득함은 물론 도입될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을 생산, 수출하거나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정부 권장품 등을 대응수출토록 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80년대 중반부터 군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98년도에는 약 1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기간중

총 16억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삼성항공 등 87개 업체가 참여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7억5천만달러의 수리부속품을 제작 수출하고, 대우중공업 등 146개 업체에서 정부권장품 8억 5천만달러 상당을 수출한 결과이다. 한편 수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약 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삼성항공이 미국의 Pratt & Whitney사와 1억 5천만달러의 대규모 항공기 엔진부품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화가득을 위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 조달본부는 외국에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군사절충교역을 강화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수리부속품 제작수출, 방산물자 및 정부권장품 수출, 외국군 장비에 대한 정비용역 획득, 주요 개발사업 공동참여 등 외화가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고로 오른쪽 표의 내용 중 수출은 군사 절충교역을 통해 제작된 방산물자와 정부 권장품 및 그 부품의 해외수출 및 국내 수입대체 성과를 포함한다.

'83~'98년 절충교역 추진실적 (총괄)

단위:백만달러

연도	유형별 계	기술획득	수출			장비 획득
			소계	부품제작	정부권장품	
계	3,342	1,475	1,606	756	850	261
'98년	383	243	105	57	48	35
'83~'97년	2,959	1,232	1,501	699	802	226

업체별 (수출)

단위:백만달러

연도	업체별 계	삼성 항공	대우 중공업	대한 항공	LG정밀	삼성 전자	기타
'98년	57	35	12	1	3	-	6
'83~'97년	699	181	148	57	44	22	247

정부권장품

단위:백만달러

연도	업체별 계	대우 캐리어	삼성 전자	현대 정공	대우 중공업	LG정밀	기타
'98년	48	23	-	-	-	-	25
'83~'97년	802	97	88	40	13	6	558

한 · 이스라엘, 한 · 터어키 방산협력회의 개최

- 방산협력 다변화 및 수출 증진 기대

국방 부 문일섭 획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스라엘과 터어키를 방문하여 양국과 각각 방산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터 및 한·이 방산·군수 공동위 회의는 금번이 각각 3차로 지난해 한국의 경제위기로 연기되어 오다 금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ILAN BIRAN 국방사무차관과 한·이스라엘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갖고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방문하였다.

금번 한·이 방산·군수 회의에서는 방산교역시 필요한 품질보증협정에 서명하고, 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교환협

정 체결에 대하여 협의하고, 한국산 방산물자에 대한 구매 확대,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3월 16일부터 19일 기간중 터어키 앙카라에서 터어키 국방부 SALIH CETINKAYA 경제기술차관보와 방산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방산·군수협력 협정 및 품질보증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방산협력 확대 방안,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따라서 금번 회의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방산분야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협력시향이 많은 터어키와의 협력을 통하여 방산협력을 다변화하고, 방산수출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